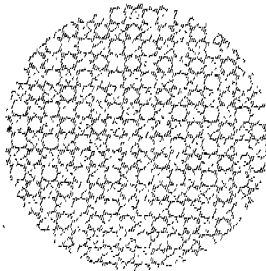


◇ 머릿말 ◇

올해 中小企業部門 金融支援 어떻게 달라지나



今年들자 官邊側으로 부터의 中小企業 育成熱이 대단하다. 정부의 각 部處마다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한마디씩을 言及하여 中小企業에 대한 높은 關心을 보이고 前例없는 中小企業 育成意志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반가운 現象이다. 물론 과거에도 정부는 中小企業 育成에 힘을 기울여 왔었고 때때로 中小企業 육성에 대한 높은 意志를 보였던 바 없지 않았으나 80年代 後半期에 접어들면서 中小企業을 보는 視角이 종전의 그것과는 달리 중소기업을 本格的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認識을 새롭게 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産業社會도 70年代의 高度成長時代를 거쳐 그간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도 우리나라 産業經濟가 安定成熟期에 접어들면서 中小企業이 우리 經濟의 基盤 구실이 되어야 한다는 認識이다. 사실 産業의 흐름이 종전의 大企業을 기반으로 하는 大量生産체제나 鐵鋼, 造船 등 重化學工業을 떠나서 情報, 通信, 비디오産業 등 이른바 尖端産業이 앞으로의 産業社會를 이끌어 가는 中核産業이며 여기에는 中小企業의 새로운 모델의 機能과 役割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中小企業이 종전에 강조되었던 社會的 役割에서 經濟産業的 新産業時代에의 기능과 役割이 時急히 요청되는 時點을 맞은 것이다.

이러한 理由에서 今年의 정부의 中小企業 育成施策은 施策모델에 있어서 劃期的으로 補強되고 있다. 中小企業部門에 대한 投資, 財政·稅制, 競爭力, 協力체제 技術開發, 輸出産業化, 地方工業 育成 등 全分野에 걸쳐 支援策이 前例없이 強化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名實이 相符하는 中小企業 時代의 來到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本稿에서는 紙面關係上 中小企業에 대한 投資金融 部門의 支援施策이 어떻게 얼마나 強化되었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 金融支援破格的 擴大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貸出規模가 前例없는 幅으로 늘어났다. 올해 中小企業에 대한 支援規模는 지난 85년의 3조 6천 971억원에 비해 26.3%가 증대된 4조 6천 700억원이다. 이것을 中小企業 專擔

柳 騎 榮

企協中央會

金融기관인 中小企業銀行과 國民銀行등의 與信限度를 보면 지난 85년도 규모의 약 두배로 늘어났는데 85년도 4천650억원이 금년에는 9천25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와 동시에 中小企業 貸出義務比率도 地方銀行을 與信對象을 中小企業에 맞추어 55%에서 80%로 높이고 外國銀行의 國內支店은 종전의 25%에서 35%로 10%를 높였다. 또 保險會社는 30%에서 40%로 늘리고 이에대한 履行與否에 따라 한국은행의 支援比率를 강화할 方針인데 이는 義務貸出 비율초과 또는 未達額의 50%를 加減支援한다.

둘째 信用保證基金의 保證規模를 增額한다. 담보 부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中小企業을 위하여 信用保證基金의 保證純增규모를 지난해의 3천575억원의 25%가 증가한 4천500억원으로 늘리고 전액을 中小企業 保證財源으로 하며 信用貸出 基盤擴充을 위하여 종래의 담보위주의 貸出慣行을 지양하고 事業性 中心으로 信用貸出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한편 大企業의 保證下에 下請納品業체에 대해서는 銀行이 信用貸出케 하며 優良企業이 發行하는 어음을 中小企業이 割引依賴할 경우에는 全額을 信用貸出토록하며 信用貸出 취급자에 대해서는 免責을 制度化하여 이같은 信用貸出을 원활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技術集約型 중소기업을 集中支援하는 方案의 하나로 信用保證基金에서 技術信用 保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셋째로는 設備金融支援을 대폭 확대한다. 이는 設備投資의 活性化를 진작시키려는 政策的 意圖이다. 이를 위해 設備金融의 融資條件을 개선하여 輸出產業 設備金融의 融資比率를 소요자금의 90%였던 것을 100%로 올리고 국민투자기금의 國產機械 購入資金도 所用資金의 80%이었던 것을 所要資金 全額을 負擔하도록 하였다. 이와 同時에 輸出設備 金融支援額을 85년도의 4천646억원을 86년도에는 2배가 훨씬 넘는 1兆원으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중소기업 부문에서 輸出設備자금 지원은 무제한 供給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輸出設備金融支援에서는 中小企業을 優先지원키로 하고 있다.

올해 정부는 中小企業 設備金融 지원에서는 前例 없는 重點을 두고 있는데 施設資金 取扱銀行을 全銀行이 取扱토록 하고 특히 企銀 및 國民銀行은 同一에 대한 貸出限度에 施設資金은 除하는가 하면 信用保證基金은 보증한도에서 施設資金대출에는 保

證은 除外키로 하였다. 또 대출범위에 있어서도 종래 貸出範圍를 鑑定價格의 70%내지 80%내에서 貸出하던 것을 100%까지 貸出토록 全銀行으로 하여 金 內規에 反映하였는데 이는 中小企業에 대한 資金을 최대한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적 의도인 것이다.

넷째로 指摘할 수 있는 것이 技術集約的 中小企業에 대한 集中育成策이나 中小企業 技術開發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金融面에 力點을 두고 있는데 新技術集約型 벤처企業에 대한 지원규모는 지난해 1,980억원을 금년에는 2,980억원으로 늘려서 지원키로 하였는데 同資金은 金型開發, 半導體 등 育成에 重點을 두기로 하고 종래의 애로점을 모두 시정키로 하였다. 즉 融資조건이 종전에는 一般資金과 같았고 오히려 복잡한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擔保爲主와 新技術 企業化資金 대출이 企業이 成立된 段階에서 비로소 가능하는 등 어려움과 非合理的 條件이 있었을 뿐 참으로 資金이 절실히 필요했던 技術開發 단계에서는 지원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올해 정부는 이러한 모순된 점을 감안하여 各種 技術開發資金 지원조건 및 節次를 簡素化하고 新技術事業을 지원하기 위한 投資信託확대와 株式市場의 場外去來도 도입할 것을 檢討키로 하였다. 한편 中小企業을 專擔하는 벤처캐피탈(冒險資金) 조성을 위하여 中小企業銀行, 國民銀行 그리고 市中銀行에 營生소기업 支援基金을 新設하고 經營指導 機能을 強化하기로 하는 한편 技術開發資金의 財源確保를 위하여 工業發展基金에서 300억원, 국민투자 기금에서 550억원등을 조성할 方針이다.

다섯째로는 中小企業의 創業支援을 크게 強化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新規就業人口가 40~50만명씩 늘어나고 있는가하면 産業施設이 점차 自動化하는 추세 속에서 새로운 失業者가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이들 失業者의 再收容이 時急한 課題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의 就業으로는 雇傭效果가 큰 中小企業의 發展과 중소기업의 創業이 크게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中小企業 創業支援자금을 500억원으로 확대책정했다. 즉 創業支援基金 200억원과 국민투자기금에서 300억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를 設立한다.

한편 創業造成資金을 有効適正하게 支援하기 위하

여 中小企業銀行에 創業金融 案内窓口를 新設하여 創業者的 편의를 도모한다.

여섯번째로 中小企業部門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部品産業과 素材産業이다. 이 두가지 分野는 中小企業이 當面한 가장 基本的이고 시급한 課題이다 때문에 정부당국은 이 分野에 가능한 많은 자금을 供給기로 하여 輸入部品の 國産化를 촉진할 계획을 定한다. 이를 위해서 韓國銀行의 규정을 고쳐서 各市中銀行의 部品·素材産業에 대한 金融支援을 최대한으로 強化하는 한편 部品이나 素材産業에 대해서는 金融機關에 대한 韓銀對出金利인 6%를 적용케 할 方針이다.

部品の 國産化, 素材産業에 대한 金融支援 強化策으로는 同業種에 대한 金融機關 貸出에는 商業어음 再割引方式의 韓銀貸出制度 導入으로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金融支援下에 部品開發體制를 確立하기 위하여 試製品 개발자금으로 128억원을 支援기로 하고 部品開發을 위한 設備資금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한편으로는 國民銀行의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는 小企業이 中小企業으로 성장하거나 中小企業銀行의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이 中堅企業으로 발전할 경우

도 이를 무시하고 중전대로 支援하기로 하였고 中小企業의 자금사정과 隘路點등을 수시로 알아서 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中小企業界에 代表 9명이 參與하는 中小企業金融隘路打開委員會를 財務部에 設置運用기로 하였다.

◇ 自助努力이 重要

올해 中小企業 育成施策은 中小企業 各分野에 걸쳐 文字 그대로 크게 強化되었고 여기에 소개한 金融部門의 支援擴入은 그 一端에 지나지 않는다. 이같은 中小企業에 대한 劃期的인 支援施策의 轉換은 中전의 微温的인 施策을 脫皮하여 中小企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 産業經濟의 基礎구실을 삼겠다는 정부의 굳은 意志의 表現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中小企業이 新産業時代의 主役이 되는 機會를 맞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부의 支援施策만으로는 實現되는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이같은 支援은 中小企業 스스로의 自助努力을 도와주는 것인 만큼 이같은 好機會를 受容하는 중소기업자 스스로의 自覺과 時代의 흐름을 파악하고 정부의 支援施策에 便乘하는 슬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

● 案 內 ● 1986년도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				
자격종목 및 등급	원 시 접 수	시 령 일 정		합격자발표
		필 기 시 령	실 기 시 령	
○기술사 발송배전전기기기 전기용용전기재료	3. 19~3. 22	4. 27~5. 3	7. 10~7. 19	86. 8. 4
○산업안전 1급	3. 10~3. 13	4. 13	6. 7~6. 8	86. 7. 7
○소방설비 1급	"	"	"	"
○전기공사 1급	5. 19~5. 22	6. 15	8. 11~8. 17	86. 9. 8
○전기기사 1급	8. 11~8. 14	9. 7	11. 9~11. 10	86. 12. 1
○전기공사 2급	"	"	"	"
○산업안전 1급	"	"	"	"
○소방설비 1급	"	"	"	"
○전기기사 2급	9. 1~9. 4	9. 28	11. 16~11. 19	86. 12. 15